

## 나무에 새긴 마음

고지연 시나리오 작가

석양이 닿을 때마다 바닷물에 씻긴 바위들이 반짝였다. 그러나 반짝임도 잠시, 겨울 해는 짧았다.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오더니 주위의 모든 형태들이 그 속에 묻혀 버렸다.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단 말인가.”

진국은 탄식했다. 큰 스님의 만류만 아니라면 진작 강화를 떠났을 터였다. 각수 일에서 손을 떼 지 어느 덧 열흘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빈자리를 메울 각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진국은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의 마음에는 부모를 잃은 슬픔만 가득했다.

그에게 부모님의 부음이 전해진 것이 바로 열흘 전이었다. 그날도 작업실은 때 이른 초겨울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열기가 넘치고 있었다. 각수들 중 누구에게서도 추위에 웅크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진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칼과 망치에 집중해 있는 그의 마음은 오로지 경전을 새기는 일에 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경판을 향해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을 했다. 그가 절을 울리고 다시 경판을 향해 고개를 숙였을 때였다.

“이보게, 큰 스님이 찾으시네.”

누군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진국은 일손을 놓고 서둘러 큰 스님을 찾아갔다. 방문을 열자 어떤 남자가 쭈뼛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을 남해에서 판목을 실고 온 일꾼이라 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진국의 질문에 그 일꾼이라는 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문을 열었다. 그가 말을 다 했기 전에 이미 진국의 눈에는 눈물이 하얗게 흐르고 있었다. 몽골군의 소행이라 했다. 마을에 침입해 한 차례 강탈을 마친 그들이 맨 먼저 불을 지른 집이 바로 진국의 집이었다고 말이다. 부모님들은 마처 집에서 빠져나와 사이도 없었다고 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민들이 피난해 온 곳이 바로 남해였던 게지요. 마침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이 강화에 오게 되어,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진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큰 스님 역시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실 뿐이었다.

그가 숙소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동료 각수들은 모두 취침에 든 다음이었다.

진국은 마지막 뺏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목기만을 주로 만들던 아버지는 아들의 재주가 자신처럼 살기는 아까운 것이라 여겼다. 그때 마침 대장경 조판이라는 거대한 불사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몽골군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게다가 부인사에 봉안되어있던 대장경이 그들의 소행으로 소실되었다는 소식이 나라 전체로 퍼지자 민심은 더욱 위축된 상황이었다. 그때 나라에서 마련한 타계책이 바로 대장경 제작이었다. 불력으로 외적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리 대단한 불사에 참여할 수 있구나.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시주 한 번 못하는 것이 걸렸건만, 큰 공덕을 쌓을 일이 생기는구나. 쌓은 만큼 돌아오기 마련이라 하였다. 신심을 다하여 일을 마치고 돌아오너라.”

마른 나무처럼 갈라진 부모님의 얼굴에는 잠시 윤기가 돌았다. 섬에 온 진국은 아버지 말대로 신심을 다하여 작업에 충실하였다. 쌓은 만큼 돌아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나. 부모님은 몽골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자신은 부모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불효자였다. 이제 며칠 후면 임금이 대장경 조판을 윤허한 지 6년이 된다. 하지만 전세는 여전히 불리하다는 소식이었고, 백성들의 삶은 곤궁하였다. 조정 관리들은 그

# 아버지는 큰 공덕을 쌓을 일이라며 아들을 강화로 보내고



삽화 · 김홍인

저 잘 진행되는 조판 사업이 마치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백성들이 정성으로 내는 조세를 흐뭇하게 거둬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애초에 뒷사람들의 목적이 불심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것이었을까, 아니, 애초에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백성들을 무지몽매하다 여기는 그들의 술수가 분명했다. 진국은 회의가 들었다. 의심이 드니, 전처럼 일이 손에 잡힐 리 만무했다. 실수가 끊이지 않아서 귀한 판목만 못 쓰게 만들 뿐이었다. 그런데도 큰 스님은 그가 섬을 떠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부모를 잃은 아픔을 어찌 쉽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 부모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국은 숙소 안을 둘러보았다. 몹시 고단한 날을 보냈을 각수들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숨도 지금 그의 한숨만큼 무겁지는 않았다. 그렇게 느껴졌다. 진국은 문득 그 이유가 그들이 위정자들의 생각대로 무지하기 때문이라

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이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진국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누군가 그를 불러 세우는 소리가 들었다.

“오늘도 작업실에는 가지 않을 셈이냐?”

큰 스님이었다. 진국은 얼른 합장을 하며 예를 표했다.

그리고 잠시 후, 진국은 경관의 완성 단계라 할 수 있는 옷칠 작업장에서 있었다. “일단 여기서 일손을 돕도록 해라. 해가 바뀌어도 네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떠나도 좋다.” 그를 여기서 데리고 온 큰 스님이 자리를 뜨기 전 하신 말씀이었다. 멍하게 서 있던 진국의 어깨를 누군가 톡하고 쳤다.

“명칭이 서 있지 말고, 저기 삼수 옆으로 가서 일을 배우시게. 이보게, 삼수!”

우두머리 쯤 되는 장인이 가리킨 곳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

판에 옷칠을 하고 있는 몸집 큰 사내가 보였다.

옷칠 역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인긴 하나, 아무래도 경전을 옮겨 쓰는 필생이나 그를 새기는 각수들 보다는 덜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이었다. ‘밤값이라도 하라는 뜻이실까. 그냥 고향에 보내주시면 될 것들.’ 그래도 어쩔지는가. 진국은 삼수 곁에 앉아 옷칠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범을 한번 보이더니 그에게도 경판을 하나 건넸다. 난생 처음 해 보는 일이었다. 손에 익지 않은 도구로 고르게 옷을 펴 바라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진국이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삼수는 별 말 없이 눈만 부릅뜬 뿐이었다. 작업실은 고요했다. 진국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좁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시키는 일이니 한다는 마음이었지만, 어느 새 일에 빠져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장경 조판이라는 불사가 의미를 잃어가던 중이었다. 다음 날이 되자 진국은 다시 옷칠을 하

### 성지순례!!

2월 21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7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이티오 7일

3월 2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이티오 7일

미얀마 종교성 관례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베트]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1월 5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 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무어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 백암역리원

02) 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 5번출구 동작구청옆

###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불조정맥  
Hwa-du 화두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계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